

황교안 “차 탄핵 부당”...與 “국민 모독”

MB “병명만 9개, 돌연사 가능성도” 수면무호흡증·기관지확장·당뇨병 등 호소... 석방 요청

홍 원내대표 “당시 황 전 총리도 현재 결정 존중”

박주민 “천만 촛불의 힘” 박광온 “후보 자격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자유한국당 당권주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민주당은 특히 황 전 총리가 한국당 유력 당권주자라는 점을 의식, 당대표 후보 자격이 없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5·18 망언’에 대한 한국당의 반성 없는 태도를 제자 규탄하기도 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이) 5·18 망언으로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

에 정면 도전하더니 이제는 황교안 전 총리 등 당권주자들이 앞다퉀 탄핵이 잘못됐다고 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전날 한국당 전당대회 TV토론회에 출연한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어쩔 수 없었냐’는 질문에 ‘X’ 팻말을 들었다. 그는 그러면서 “객관적인 진실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정치적 책임성을 물어 탄핵 결정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2017년 탄핵은 우리 국민이 이뤄낸 위대한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3·1 운동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가치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이 분연히 떨쳐

일어선 민주혁명이었다”고 규정했다.

이어 “이런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야 국회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탄핵소추가 이뤄졌고,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탄핵이 결정된 바 있다”며 “황 전 총리도 당시 담화문을 통해 탄핵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현재의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그러나 이제 와서 탄핵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 부정이고,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5·18 망언 의원을 제명시키지 않고 있는 건 쿠데타를 옹호하는 것이고, 탄핵을 부정하는 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길 바란다. 건전한 보수가 아닌 극우의 길로 가겠다는 건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을 모독한 역사 퇴행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탄핵이 어떤 과정으로 이뤄졌느냐”며 “국민이 추운 겨울 내내 1천만명 넘게 촛불을 들었고, 이를 통해 탄핵 반대에 소극적이던 의원들의 입장을 바꿔 어렵사리 3분의 2 이상이 탄핵에 동참한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 역시 “황교안 후보가 탄핵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등 자기발언 안에서 상호모순 충돌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제1야당 대표 후보로서 자격이 사실상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파문이 지속되고 있는 ‘5·18 망언’에 대한 한국당의 태도를 규탄하기도 했다.

뉴스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수면무호흡증으로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며 석방을 거듭 요청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전날 보석에 관한 의견서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추가로 제출했다.



대해서도 반박했다.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2차례에 걸쳐 재판부나 구성원이 변경됐고, 수사·증거기록만 10만쪽이 넘어 이에 해당한다”며 “보석 청구 이유는 충실한 심리를 해달라는 취지다. 2개월 내 마무리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은 졸속심리를 하자는 것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구속기간 내 심리를 마쳐야 한다는 검찰 주장이야말로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이지가 반형사소송법적”이라며 “구속기간 내 재판이 마쳐질 수 없으니 자명해진 현 상황에서 구속기간이라는 형식에 얽매어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할 것이 아니라 우선 석방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에 대해 검찰이 오해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병명만 수면무호흡증, 기관지확장, 당뇨병 등 9개로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대통령이 이 전부터 계속해서 앓아왔던 수면장애와 동반한 증상으로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겨 수면장애가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에 이르고 있다”면서 “의학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수면무호흡증을 가볍게 보는 일반인의 시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돌연사와의 연관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지난 18일에는 이 전 대통령의 백혈구 수치가 지나치게 높음이 밝혀져 구치소 담당 의사가 긴급하게 원인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며 “이 전 대통령은 ‘폐병을 부린다’는 오해를 살 것이 염려돼 그동안 병세를 자세히 밝히지 않고 참아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임의적 보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구속기간 내 심리를 마쳐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뉴스

보수野 “김경수 구하기, 삼권분립 무시”

한국당, 드루킹 특검 재추진... 바른미래 “권력 남용”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김경수 경남지사 실형 판결 유무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법리적 타당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맞섰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 두 발언을 통해 “김경수 구하기에 나선 여당의 모습은 헌법도 없고 대한민국도 없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중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대법원장을 구속하면서까지 사법 농단 회초리를 든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정부여당의 통제 하에 두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법치를 훼손한 삼권분립을 뿌리째 흔드는 여당의 오만한 권력 남용을 보면서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여당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통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날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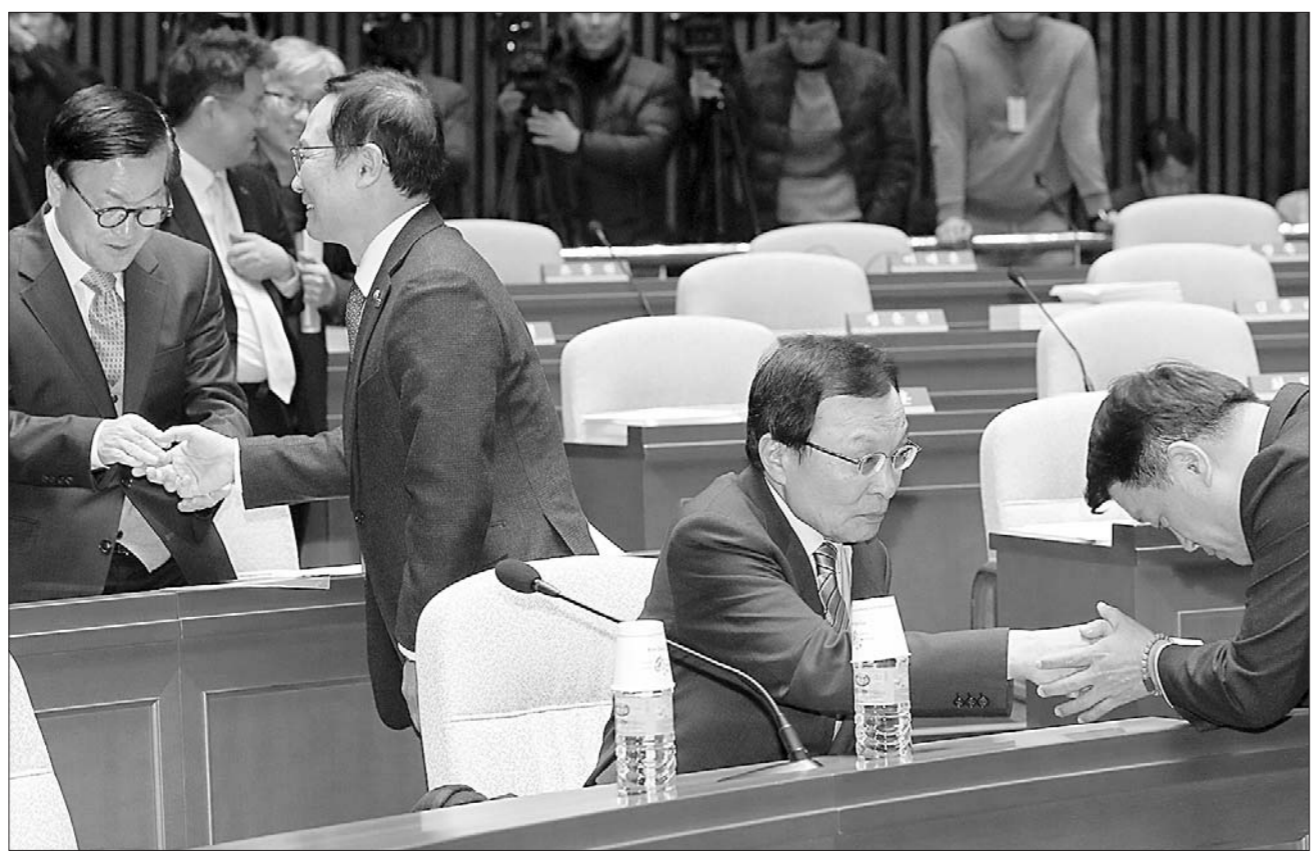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 두 발언을 통해 “김경수 구하기에 나선 여당의 모습은 헌법도 없고 대한민국도 없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주광덕 의원은 야당 의원 탄압성 댓글 조작뿐만 아니라 친문(친 문재인)이 아닌 정치인들에 대한 댓글 조작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한국당은 김 지사 판결문을 두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간사인 오신환 사무총장도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이 사법부를 압박해야 한다며 허위명시 행태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법적인 논리와 사실에 근거해 재판 결과를 분석해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형사소송법에 규정한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문제가 되는 판결을 내렸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뉴스



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총회에서 이혜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참석 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뉴스

“文 퇴진운동 전개”

애국당, 대구 도당 개소식서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20일 대구를 방문해 “문재인 정권 1년9개월만에 좌파 사회주의 정책으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가 다 무너지고 대구·경북의 경제는 완전히 얼어붙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대구 동대구로에 위치한 대한애국당 경북도당 개소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조작선동, 국정농단,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민간인 사찰, 판사에 대한 탄핵놀이 등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면서 “대한애국당이 보수의 성지인 경북도와 대구를 중심으로 강력한 문재인 퇴진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시장경제를 지키느냐의 체제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촛불의 눈치를 보느라 투쟁하는 것을 완전히 잃어버렸기에 더 이상 보수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애국당이 튼튼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다음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라는 믿음으로 매주 태극기 집회 인원이 사상 최대로 갱신되고 있고, 매주 5천명의 당원이 가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신 정치인에 대한 강력한 처단과 국회의원 80%의 인적쇄신을 통해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한다”며 “100만명 당원, 20만명 책임당원, 30만명 태극기 집회를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

민주 “5·18특별법 개정 당론채택...왜곡 처벌”

野 3당과 공동 발의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20일 5·18민중화운동을 왜곡, 비방, 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5·18 특별법을 당론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

당 및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개정안 공동 발의를 추진한다.

김미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위원회 직후 기자회견과 만나 “5·18 특별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5·18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왜곡, 비방, 날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라고 설명

했다.

개정 방식을 두고는 “기존에 박광온 의원이 낸 안이 있다”며 “평화당, 정의당에도 같이 제안해 포함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개별적으로 참여하고, 무소속 의원과도 같이 하는 방식으로 공동 발의하기로 당론을 채택했다”고 했다.

뉴스



봄기운 불려오는 흥매화 활짝

광주광역시 문화재단에 꽃망울을 활짝 터뜨린 흥매화가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산책 나온 시민들이 흥매화를 배경삼아 추억을 남기는 등 이른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www.gwangju.or.kr

새로운 시의 모험하는 문화재단, 구도심재생사업 2·3·4, 6·7면 | 영하의 영아들 10·11면 | 연세대학교 18·19면 | 주상옥의 미술기행 28·29면

기획·연·재·물 | ① 김세경의 월드뮤직 - 보헤미안 랩소디 ② 인문지행의 세상읽기 - 헤라클레스를 보는 시각

“문화 리더십으로 세계가 탐내는 도시로”

광주가 아시아문화의 전진기지로 거듭나게 된다면 세계적 기업인 구글이 광주에 손을 내밀 것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그리는 미래 상이다. 이진식 문화재단장 직무대리는 한국 문화경제 모델의 가치가 광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역사회가 주체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지역대학과 연계해 연구결과물이 문화작품으로 생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대학도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진식
문화재단장 직무대리

옛 전남도청, 5·18 당시로 원형 복원

옛 전남도청이 1980년 5월 당시의 모습으로 원형 복원한다. 이를 위해 본관과 별관, 민원실, 경찰청 본관, 민원실, 상무관 등 6개 동을 5·18 당시 모습으로 복원한다. 문체부는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해 3월 중으로 대국민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인 복원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대의 아픔·현안, 작품으로 소통

예술과 문학작품은 시대의 표상이다. 광주·전남은 반식민과 남종화, 곁잡한 문인들이 배출해내며 한국 인문학의 원형으로 불리고 있다. 지역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상처의 위무와 예술화, 이를 통한 세계적 공감대를 꿈꾸는 지역 공예예술단체를 만나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문화재단 전시 앞둔 김생수 소장

힘들지만...수천년 이어온 전통 지키겠다

담양에서 조선후기부터 20세기 초반 목재 민속 유물 뿐만 아니라 전통 목가구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김생수(66) 소장. 14살 때 무작정 서울로 올라가 가구 등 목공예 기술을 배우기 시작한 이후 올해로 40년째 이조가구 제작에 전념하고 있는 지역의 손꼽히는 명인이다.